

2026년 국제 가축유전자원 신규 등재 후보 모집

- 가축다양성정보시스템(DAD-IS) 신규 자원 발굴 추진
- 재래가축, 지역적응품종 국제 공인 통해 국가 주권 기반 강화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우리나라 고유 가축유전자원의 국제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3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축다양성정보시스템(DAD-IS) 등재 후보를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가축생명자원(재래가축과 지역적응품종*)을 실제 보유한 농업인과 법인, 기업이다.

* 외래자원이 합법적으로 도입되어 6세대 또는 40년 이상 국내 환경 조건에 적응해 육성된 품종.

신청을 원할 경우, 기초 조사표와 증빙서류를 준비해 우편이나 전자우편 또는 직접 방문(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해 접수하면 된다.

최종 등재 여부는 기원, 혈통, 집단 특성, 활용 가능성 등 14개 항목에 대해 전문가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가축다양성정보시스템(DAD-IS)은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UN FAO)가 운영하며, 각 나라의 가축유전자원을 국제적으로 공인하는 사실상 유일한 제도다.

현재 196개국의 소, 돼지 등 38축종 1만 5,000여 품종이 등록돼 있다. 우리나라는 2025년 기준 22축종* 170품종을 등재해 관리하고 있다.


* 기존 보고에서 꿀벌은 서양벌과 동양벌 두 축종으로 구분해 23축종으로 보고하였으나, 축산법 시행령에서 꿀벌로 통합 고시에 따라 현재는 하나의 축종으로 표기하여 22축종으로 변경.

자세한 신청 방법은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www.nias.go.kr) 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가축유전자원센터(055-960-3523)로 하면 된다.

가축다양성정보시스템(DAD-IS) 등재는 유전자원의 기원과 혈통, 특성에 대한 객관적 기록을 남긴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미래 기후변화와 질병, 식량 위기 등에 대비해 전략적 자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의미가 크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 한만희 센터장은 “가축유전자원은 단순한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미래 세대에 물려줄 전략적 식량 자산”이라며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 품종과 숨은 자원이 적극적으로 발굴돼 국제적으로 공인받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신규자원 모집 공고

담당 부서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	책임자	센터장	한만희 (055-960-3510)
		담당자	연구사	김승창 (055-960-3523)
				

1. 목적

- 가축생명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통한 다양성 확보 및 경쟁력 강화
- 국내 보존·육성 품종(계통)의 권리보호 및 국제사회에의 정보 제공

2. 신청 대상

- 축산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제적 가축생명자원(생축)을 보유하고 있는 자

3. 신청서 제출 기간 및 방법

- 기간 : 2026. 3. 16 ~ 5. 15.
- 방법 : 우편, 방문, 전자우편 접수 중 택일
 - * 방문 접수는 접수 기간 중 평일 업무 시간(09:00~18:00) 내, 우편 접수의 경우 접수 마감일 18:00 시 내 도착분에 한함.

4. 제출서류

- DAD-IS 등재를 위한 기초조사표 및 증빙서류 일체(해당축종 서식선택, 복수 축종 신청 가능)
 - * 신청 해당 축종이 서식에 없을 경우, 공고처(가축유전자원센터)에 문의

5. 제출처

- 우편 및 방문 접수 : 50000 경상남도 함양군 서상면 덕유월성로 224,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 자원보존관리연구실
- 전자우편 : angrs@korea.kr

6. 심의 절차

- 신청 → 신청서 검토 및 현장실사 → 위원회심의(구두 발표 포함)
→ 종합 평가 → DAD-IS 등재
 - * 위원회심의 60점 이상일 경우에 한해, DAD-IS 등재 추진 대상으로 선정

7. 신청 시 유의 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및 공개하지 않음
- 심의는 접수 마감일 이전 제출 서류에 한함